

## 말하고 생각하는 '나' 되기

-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으로 본 소설 『1984』와 영화 「타인의 삶」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201821629 이아림

1. 들어가며
2.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3. 예술 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말과 사유, 판단의 무능력
  - 3-1. 소설 『1984』의 '이중사고'
  - 3-2. 소설 『1984』의 '오브라이언'
  - 3-3. 영화 「타인의 삶」의 '도청'
4. 나가며
5. 참고문헌

### 1. 들어가며

한나 아렌트는 본인이 저술한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sup>1</sup>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말하기의 무능성(inability to speak), 생각의 무능성(inability to think), 판단의 무능성(inability to judge)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한나 아렌트는 말하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의 무능력이 비극을 불러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아렌트는 예루살렘 재판을 방청하며 아이히만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파악했는데,<sup>2</sup> 그 근거 중 하나로, 아이히만은 지속적으로 상투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생각은 언어로 작동되고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악의 평범성의 징후에 대해 '말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했다.<sup>3</sup>

<sup>1</sup> 이 번역서에서 banality를 '평범성'이라고 옮긴 이유는, 악이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근원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담는, 원의에 가장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해서이다. Hanna Arendt,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그레이트 북스, 2008, p16.

<sup>2</sup> Hanna Arendt,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그레이트 북스, 2006. p106

<sup>3</sup>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생각』, 한길사, 2017, p61-62

필자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통제당하면 '생각하기'라는 행위 또한 지배당할 것이라 보았다. 아렌트는 '생각하기'를 통해 정신의 개방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생각하기'의 과정이 주체로 하여금 타자성(ootherness)을 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자기 자신'은 특정하게 고정된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고 언제나 가변적이고(changeable) 모호한(equivocal) 채로 다가온다. '생각하기'의 수행은 결국 '자기'가 모든 가능성을 가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sup>4</sup> 즉 아렌트는 소크라테스식의 자기 자신과 대화(dialog between me and myself)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우리를 현실과 연결시켜주는 말을 권력층이 지배함으로써 사람들의 사고가 마비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말하고 생각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설 『1984』에 나오는 '이중사고'와 '오브라이언'에 집중하여 말과 사고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 영화 「타인의 삶」에서는 말과 사유의 총체인 예술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주인공이 말과 사고를 넘어 결국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여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사고하며 판단할 수 있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서 나타난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 가지의 무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이 그 것이다.<sup>5</sup> 여기서 아렌트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서술한 것에 주목해볼 수 있다.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인물이지만 타인에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위 3가지의 무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아이히만이 가지고 있었던 말의 무능함은 나치의 언어규칙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나치의 언어규칙은 학살이나 유대인의 이송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 표현법을 만들어 대신 사용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학살은 최종해결책, 완전 소개, 특별취급으로, 유대인의 이송작업은 재정착, 동부지역 노동 등으로 불렀다.<sup>6</sup> 아렌트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효과에 대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과 거짓 말에 대한 그들의 오랜 '정상적인' 지식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문제 처리에 본질적이었던 아주 다양한 많은 협조체제를 이룰 때 질서와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7</sup> 말하기의 무능성은 자연스레

<sup>4</sup> 김주만, 「한나 아렌트의 '생각하기'의 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32-33.

<sup>5</sup> Hanna Arendt,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그레이트 북스, 2006, p106.

<sup>6</sup> 위의 책, p21.

<sup>7</sup> Hanna Arendt,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그레이트 북스, 2006, p150.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말살시켰는데, 말이 지배당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나치의 언어로만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검토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여기서 자기 검토란 반성적 사유를 말한다. 반성적 사유는 사물을 식별하는 인지 작용이나 문제풀이 능력, 계산 등과 전혀 다른 정신적 기능이다. 본래 인간은 반성적 사유를 통해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면, 자기과의 모순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을 느끼며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sup>8</sup> 사유는 우리에게 독단에 반대하고 구태와 인습, 외부의 잘못된 권위와 명령에 거부할 힘을 부여하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뿌리가 된다.<sup>9</sup> 다시 말해 사유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의 무능성이 사고하는데 영향을 미쳐, 나치당원들은 자신이 행할 행동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사고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명령을 따랐다. 아이히만은 나치의 언어규칙에 자신의 말이 묶여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다. 나치가 주입한 하나의 명령에 충실했기에 타자의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잃었으며, 이는 책임의 윤리를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의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아렌트의 판결은 칸트적인 윤리적 의도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일한 개인이 단독적으로 책임 있게 되는 결과의 원리에서 도출된 것이다.<sup>10</sup> 따라서 아렌트는 "비록 8000만 독일인이 피고처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을 것"<sup>11</sup> 이라고 선언했다.

### 3. 예술 작품에서 제시된 말과 사유, 판단의 무능력

앞으로 3장에서는 소설 『1984』와 영화 「타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말과 사유, 그리고 판단의 무능력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고찰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설 『1984』의 '이중사고'와 '오브라이언'에 중점을 두어 말과 사고가 무능해졌을 때 혹은 무능해짐을 당했을 때 한 개인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한편 영화 「타인의 삶」에서는 주인공 비즐러가 '도청'하는 행위를 통해 무능력 상태에서 벗어나 말과 사유,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청'하는 행위가 비즐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1. 소설 『1984』의 '이중사고'

오세아니아의 정치 통제 기구인 당에서는 복잡한 구어를 지우고 단순한 신어를 만든다. 조사국

<sup>8</sup> 김선옥, 『한나 아렌트의 생각』, 한길사, 2017, p54.

<sup>9</sup> Hanna Arendt,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역, 그레이트 북스, 2006, p64.

<sup>10</sup> 위의 책, p41.

<sup>11</sup> 위의 책, p381.

에서 근무하던 사임이 윈스턴에게 신어에 대해 이야기를 건넬 때 했던 말을 통해 신어에 대한 당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자네는 신어를 만든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다는 걸 모르나?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sup>12</sup>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극도로 단순화하는 과정인 ‘신어 생성’은 결국 사람들을 완전히 이중 사고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둔다. ‘이중 사고’란 한 사람이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을 동시에 가지며, 그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불필요해진 사실은 잊어버렸다가 그것이 다시 필요해진 상황일 때 망각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며, 객관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한편으로 언제나 부정해 버린 현실을 고려하는 등의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sup>13</sup> 즉 당은 ‘신어’ 생성과 ‘이중 사고’를 통해 사람들의 말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고자 했으며, 당의 의도대로 그 능력이 말살된 사람은 당의 규칙, 원리 그대로 움직이도록 변했고 만들어졌다. ‘나’는 없고 ‘당원’만 남게 된 것이다.

한편 아이히만의 재판을 방청하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발언에 대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언어는 오로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반복적으로 사용된 인공어인 상투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가 사용한 상투어나 관용어 등은 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다. 현실-말-사유의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언어가 고정되어 버림으로써 사유와 판단이 현실과 유리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sup>14</sup> 소설 『1984』에 등장한 ‘신어’와 아이히만이 사용한 ‘상투어’는 결국 사람들의 사고 범위를 극도로 제한시키고, 사고하는 행위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3-2. 소설 『1984』의 ‘오브라이언’

1984년 오세아니아에서 살고 있는 윈스턴은 외부당원으로서 <런던 타임즈>에서 신문 기사를 수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는 말하고 사고하는 데 무능력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빅브라더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심을 품고 있으며, 본인의 생각을 ‘일기를 쓰는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설 『1984』은 윈스턴의 상황을 전복시키면서 말하고 사유하는 데 무능력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시하게 만든다.

윈스턴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려 시도 하면서 오세아니아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일기로 쓰고 줄리아와 대화를 하며 오브라이언 저택을 찾아가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

<sup>12</sup> George Orwell, 『1984』, 정희성 역, 민음사, 2003, p75-76.

<sup>13</sup> 위의 책, p

<sup>14</sup> Hanna Arendt,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역, 그레이트 북스, 2006, p22.

한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줄리아와 사랑을 나누며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즉 윈스턴은 오세아니아 체제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윈스턴의 능력은 결국 국가 체제에 의해 좌절된다. 내부 당원인 오브라이언은 자신의 정체를 굳이 윈스턴에게 말하지 않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윈스턴을 감시한다. 본인이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윈스턴이 행동하게 유도하고, 마침내 윈스턴을 체포했을 때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과거의 생각과 행위에 대한 고백과 반성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를 '말하고 생각하며 판단하는데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 끊임없이 들 더하기 들은 넷이냐, 다섯이냐 물었으며 결국 윈스턴이 다섯이라고 대답하게 만든다. 결국 적어도 생각하는 데 무능력하지 않았을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의 고문과 협박으로 인해 결국 무능력하게 만들어 진다. 그러나 윈스턴에게는 그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었다. 그 것은 바로 줄리아에 대한 사랑이다. 하지만 101호로 보내진 윈스턴은 본인이 가장 혐오하는 '쥐'를 앞에 두고 결국 줄리아를, 말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 때, 윈스턴은 '나'이길 포기하고 '당원'이 되는 것이다. 소설 『1984』는 그저 나라를 위해 스스로 무능력을 택한 삶보다 외부의 권력에 의해 능력을 빼앗기고 꺾데기만 남은 삶을 심도 있게 그림으로써, 죽지 못하고 오세아니아 사회에 덩그러니 남겨진 윈스턴의 공허함을 강조한다.

### 3-3. 영화 「타인의 삶」의 '도청'

주인공 비즐러는 신뢰받는 동독의 비밀경찰이자 경찰대학의 교수이다. 그는 서독으로 도망치는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대답을 듣기 까지 40시간을 고문하는 냉혈한이기도 하다. 어느 날 비즐러는 극작가 드라이만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게 되고 그는 하던 대로 드라이만의 집에 도청 장치,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24시간 내내 도청을 한다. 그가 드라이만을 감시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동독에 대치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시작되었다. 동독 사상에 반하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만약 한다면 그 행위의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도청한다. 한 사람의 사생활을 모두 녹음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타의적으로 '나'이길 포기 당한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과도한 충성만이 있을 뿐이다.

말하고 사유하는 데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은 드라이만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청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그의 생각의 변화를 섬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관객들은 그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극작가 드라이만과 배우 크리스타의 일상을 모두 지켜보며 그는 드라이만의 집에 몰라 들어가 브레히트 시집을 가져와 읽고, 자신의 꿈을 위한 성접대냐 드라이만과의 사랑이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타를 우연히 만나는 척하며 응원해주기도 한다. 비즐러가 그저 동독의 비밀경찰로서 왜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고민 없이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 즉 생각하는 데 무능력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후반부에 드라이만을 위해 타자기를 없애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드라이만이 동독의 자살률 통계와 관련된 논평을 쓴 것에 대한 심증이 충분한 시점에서 비즐러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그가 의심받는 것은 물론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즐러는 분명한 물증인 타자기

를 없애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가 잘 나가는 비밀 경찰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전달해주는 역할로 강등되었을 때, 그럼에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행동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담론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이만이 글을 쓰고 출판한 것을 알게 된 비즐러는 그 책을 구입하러 서점에 가게 된다. 선물용으로 포장할까라고 묻는 직원의 말에 그는 "저를 위한 것이다"고 대답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이는 판단하고 생각하며 말하는 데 무능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비즐러가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쟁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결국 나라를 위해 드라이만을 도청했던 비즐러는 드라이만의 삶을 훑쳐보며 그를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악의 평범성'이 발현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요소들을 서술 축으로 삼아 소설 『1984』와 영화 「타인의 삶」에 등장하는 각각 주인공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스스로 생각해서 도출한 사고를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하는 것이 한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가치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소설 『1984』에서는 '이중 사고'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오세아니아 국민들과, '오브라이언'으로 인해 몰래 행했던 '자신을 찾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게 된 윈스턴에 주목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해 스스로 말하고 사고하며 판단 내리는 행위를 박탈당했을 때 그 인간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게 된다는 비극을 보여 준다. 영화 「타인의 삶」에서는 반대로 자신의 사고 판단 없이 나라를 위해서만 행동하던 주인공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위의 결합체인 극작가 드라이만의 일상을 모두 지켜보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상반되는 두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더욱 뚜렷이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의 비극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측면에서 서술해가는 논리가 부족했지만 소설 『1984』의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에게 행한 행동과 영화 「타인의 삶」의 비즐러가 결말부에 드라이만을 위해 행한 위험성 있는 행동을 비교해본다면 근거가 부족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와 사례가 추가된다면 더욱 단단한 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글을 마무리한다.

#### 5. 참고문헌

<1차 자료>

George Orwell, 『1984』, 정희성 역, 민음사, 2003.

Hanna Arendt,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그레이트 북스, 2006.

<2차 자료>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생각』, 한길사, 2017.

김주만, 「한나 아렌트의 '생각하기'의 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